

## 2020년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교수/이교수 선교소식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12월24일부터 2020년 2월8일까지 중국의 내몽골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양지바른 곳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벌써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동안의 내몽골사역과 외국인 유학생사역을 알려드리며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24일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내몽골사역을 출발 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몽골에 갔습니다. 중국의 공항에서 입국을 무사히 통과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학교들은 12월말부터 기말고사를 치루고 1월초부터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시간여유가 있어서 전에 근무했던 장춘의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을 만났더니 모두들 반가워해주셨고 한국에 유학한 학생들을 잘 돌보아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극을 지도했던 학생들이 전국대학생 연극대회에서 1등을 한 지도상금 2000원을 주셨습니다. 장춘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할 학생들을 만나서 한국 유학생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춘에서 개인적으로 졸업생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교회에 출석을 하며 지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한 달간 함께 공부할 학생들 면접을 하고 8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주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방을 얻고 수업 준비를 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내용은 내가 중국어 듣기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나에게 중국어를 읽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재는 바로 중국어 성경책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자 학생들이 “왜 성경을 가지고 듣기 공부를 하나?” 고 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고 내가 가진 책이 이 책밖에 없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4명의 학생들이 와서 성경책 읽기를 하며 나는 중국어 듣는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을 여러 명이 하나?” 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발음이 다 달라서 여러 사람의 발음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책만 읽으면 지루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학생들은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학생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내가 교회에 간다고 하자 자기도 함께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2주가 지난 후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첫 주부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와 함께 와서 첫 주부터 2명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생들도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다음주일에는 7명이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째부터 교회에 출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밤 시간에 구원상담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구원상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째 주에는 23일 목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24일부터 설 명절이라서 일주일간 방학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일을 이용하여 심양에 나가서 졸업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심양으로 나갔습니다. 2명의 졸업생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명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양의 삼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어있었고, 한명은 언니와 함께 나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일에 심양의 삼자교회에 갔는데 그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도 점차 적어지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시장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화요일 점심을 먹고 내몽골로 돌아가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 갔는데 내몽골로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서성이는데 내몽골 가는 버스 한 대가 밖에 있어서 가서 물었더니 빨리타라고 했습니다. 4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그것이 심양에서 외부로 나가는 마지막 버스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몽골로 무사히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별일이 없느냐? 열은 안 나는가?” 하고 묻고 발열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많은 것을 보고 “누가 와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러 왔다고 했더니 “외부 인은 아파트에 출입을 할 수 없다.” 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수요일 오전까지만 하기로 하고, 함께 수요일에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수업을 마치고 점심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의 학부모가 아파트를 방문 했습니다. 중국음식을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자신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기에 와서 교회에 출석을 해서 너무 고마워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풍성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냐?” 고 물어서 내일 심양으로 나가서 토요일에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모든 교통이 통제가 되어서 심양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일 아침에 자가용으로 직접 심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심양으로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일 토요일 비행기로 한국에 나와서 지금은 2주간의 격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3월부터 부산의 부산외대와 대전의 배재대 유학생 모임과 서울과 부산의 몽골인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개강이 연기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이사태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봄을 기다리며 ..... 오교수(성학)/이교수(형순) 드림

#### 오교수/ 이교수선교사의 기도제목

1. 내몽골사역을 통하여 8명의 학생들에게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부산외국어대학과 대전 배재대학, 전주 경상대 외국인 유학생모임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3. 새 학기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되는 몽골인과 몽골인 유학생 모임을 통하여 몽골인들이 몽골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4.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학기가 잘 시작 될 수 있도록
5. 이교수선교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남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6. 큰딸 은혜와 작은딸 은빛이의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